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2학기 오스트리아의 TU Graz 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화학생물공학부 16학번 조예은입니다. 같이 교환학생을 다녀온 두 분께서 이미 그라츠 생활과 교환학생 전반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써 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소소하면서 주관적인 재 생각들로 후기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니 앞의 두 분의 후기를 꼭 같이 읽어 주세요!:))

1. 교환학생 지원 동기와 TU Graz 선택 이유

저는 3학년 2학기에 교환학생을 다녀왔는데, 교환학생을 가기로 다짐 한 가장 큰 이유는 (솔직하게) 탈 관악 이었습니다. (!!) 이리 저리 일에 치이는 치열한 학교생활에 너무 지쳐서 학교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학교와 익숙한 한국을 떠나서 새로운 세상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교환학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연습하고 싶은 마음과 여행을 많이 하고 싶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충분한 쉼과 새로운 경험을 통한 성장. 이 두 가지가 제가 교환학생에 대해 기대하는 가장 큰 두 가지였습니다. 교환학생을 끝난 이 시점에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루었는지는 마지막 파트에 언급하겠습니다.

공대 교환학생 리스트에 있는 많은 학교들 중에 TU Graz를 선택하게 된 것은 첫째, 영어 성적 만으로 갈 수 있고 영어를 많이 사용 하는 지역이고, 둘째, 오스트리아는 유럽의 중앙에 위치한 내륙국이어서 주변 국가들로의 여행이 굉장히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후기들을 읽어보며 그라츠가 교환학생들이 많아서 학생들끼리의 교류도 쉽고, 교환학생 케어도 잘 되어 있다고 하여 망설임 없이 TU Graz를 1지망으로 썼고, 감사하게도 TU Graz에 합격 하게 되었습니다.

2. 그라츠와 TU Graz의 장점

2.1 작지만 심심하지 않은 Graz



그라츠의 상징 Schlossberg 의 시계탑과 이곳에서 본 그라츠 전경

일단 그라츠는 정말 정말 사랑스러운 도시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교환학생들이 이곳 저곳으로 여행을 많이 다니긴 했지만, 늘 하는 말이 '그라츠가 우리 집이어서 너무 좋다.'였습니다. 큰 도시에만 살았던 저에게 그라츠는 참 아기자기하고 소박한 도시였습니다. 학교나 다른 기숙사 등 거의 모든 곳들에 자전거로 최대 15-20분 이내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크고 작은 그라츠만의 행사들이 참 많아서 주말에도 심심할 틈이 없었습니다. 2학기에 있었던

그라츠의 행사들을 몇 가지만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Aufsteiern : 9월 중순. 오스트리아 전통 축제로, 그라츠 중심가인 Hauptplatz에 근처에 맥주나 소시지 등을 파는 장들이 서고, 오후엔 시청 앞에 설치된 무대에서 로컬 밴드들과 오스트리아 포크 댄스 등의 공연들이 펼쳐집니다. 현지인들은 오스트리아 전통 의상인 dirndl을 입고 나와 다 같이 모여 맥주도 마시고 자리에 앉아 공연도 보며 즐기죠. 교환학생을 하다 보면 오스트리아 현지인들과 이야기 할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이 날 친구들과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옆에 앉은 오스트리아 현지인들과도 수다를 떨게 되어서 이것 저것 오스트리아에 대해서도 배우고 재미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전까지는 그라츠가 되게 한산한 곳인 줄 알았는데 이 날 발 디딜 틈 없이 길거리로 나온 사람들을 보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다가 나온거지?! 놀라기도 했습니다 ㅎㅎ



Aufsteiern 포크 댄스 공연과 (잘 안보이지만) 괴물 마스크를 쓰고 행진 중인 사람들

- Krampus und Perchtenlauf : 12월 첫째 주. 오스트리아의 크리스마스엔 산타클로스(St. Nicholas) 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아이들을 혼내주는 Krampus 또한 크리스마스 전통의 일부인데요, 일요일 오후에 2시간 동안 악마 마스크를 낀 수백명의 사람들과 St. Nicholas가 그라츠 메인 거리에서 행진을 합니다. 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하는 그라츠의 큰 행사입니다!

- 크리스마스 마켓 : 11월 말부터 12월 말 까지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립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따뜻한 와인(Glühwein)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츠러스, 와플, 애플 펀치 등 많은 먹거리들을 판매합니다. 한 군데에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마켓들이 열렸는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마켓은 그라츠의 상징 Schlossberg 위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마켓이었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마켓에 대해 가장 기대했던 것은 아기자기한 수공예품이었는데, 그라츠의 대부분의 크리스마스 마켓에서는 와인 등 마실 것들을 주로 판매해서 약간 실망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Schlossberg 위에 올라가면 아기자기 한 것 다 있어요!!! 귀여운 것이 많아서 지갑이 아주 위험했던 취향 저격 크리스마스 마켓이었습니다 ㅋㅋ



그라츠의 중심가 Hauptplatz의 크리스마스 느낌과 Schlossberg 크리스마스 마켓

이처럼 그라츠는 관광지로서 유명한 곳은 아니지만, 살면서 소소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 도시입니다. 여행을 갔다가도 돌아갈 곳이 그라츠기 때문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너무 아쉽지 않을 수 있었어요. 유럽에서 6개월 동안 집으로 여길 수 있는 곳이 그라츠였다는 것은 6개월 내내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2.2 교환학생이 가득한 대학 도시

그라츠의 또 다른 큰 장점은 대학교가 많은 대학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학생도 정말 많고, 교환학생 관리가 통합적으로 잘 이루어집니다. 통합적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독일어 수업이나 기숙사 등 많은 것들이 TU Graz 뿐만 아니라 uni Graz (KFU) 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교환학생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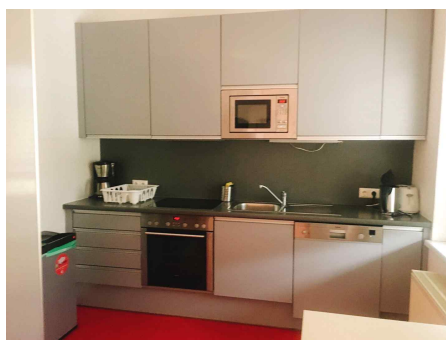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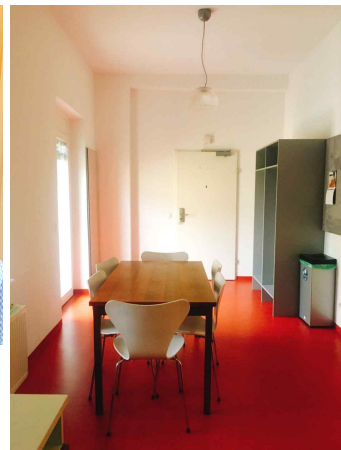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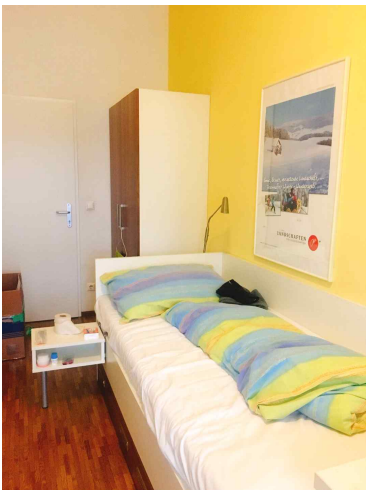
10월 개강 전에 듣는 German Intensive Course 는 정말 추천 드립니다! 독일어 수업은 평일 아침 9시-12시에 진행 됩니다. 교환학생 친구들을 매일 만날 수 있고, 수업 끝나고 난 오후엔 다 같이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다들 독일어 수업밖에 할 게 없는데 독일어 수업의 로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숙사 파티도 많이 열리고, 오후에 하이킹을 가는 등 친구들과 놀 기회가 정말 많아요. 실제로 저는 이 때 친해진 친구들과 학기 내내 자주 만나고, 여행도 같이 가고 했어요! 학기 시작 이후에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이만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라츠에 가신다면 GIC는 꼭 들으시길 추천드려요!

+) 저는 교환학생 가기 바로 전 학기에 초독 1을 들었습니다. 독일어를 배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GIC 수업 시작하기 전에 Placement tes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Written test 와 Oral test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단계 정도 스킵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패기 있게 Placement test를 신청했지만 가장 아래반인 A1-1에 배치를 받았어요. (ㅋㅋ) 여기서 듣는 독일어 수업은 매일 3시간이라고 해도 초독 1처럼 속도가 빠르지 않고, 회화를 반복해서 연습하기 때문에 거의 복습을 하는 느낌이긴 했지만, (학기 중에 들은 A1-2 까지도 중간까지는 복습 느낌이었어요) 여기서는 문법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전에 회화 표현 먼저 배워서 아예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초반엔 몽땅 다 외워야 했는데 저는 문장 구조나 동사 변화 이런 것들이 보여서 훨씬 따라가기 수월했습니다. 수업 내용 자체에 부담이 없다 보니 친구들

을 도와주기도 하고 수업 자체를 좀 더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독 1을 듣고 오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여름 방학 때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A1-2부터 시작 하실 수 있다면 더 좋고요! 허허)

기숙사는 학교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라츠 곳곳에 국제 학생 기숙사가 있습니다. (지원 방법이나 각 기숙사의 특징 같은 것은 앞선 후기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정연준 학생의 후기를 확인해 주세요!) 저는 Neubaugasse 에 1인실 5개가 주방을 공유하는 플랫에 살았습니다. 기숙사에 사는 대부분이 교환학생이긴 하지만, 교환학생이 아닌 경우도 있고 GIC를 안 듣는 경우도 있어서 입주 일자가 제각각인데 운이 좋게도 제 플랫은 모두 GIC를 듣는 교환학생들이어서 9월 첫째 주에 다 같이 입주를 하고, 쉽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환학생 중에 가장 감사했던 일이 정말 좋은 플메(플랫 메이트)들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잘 맞는 플메들과 한 플랫에서 사는 건 제가 의도해서 얻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간절히 바라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의 팁(?) 이라면, 플메들은 가장 먼저 만나기도 하고,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학기 초에 친구들에게 다가가고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조금씩 노력 하면 그 노력의 결과가 더 쉽게, 빨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인 플메가 한 명 있었고, 나머지 세 명은 영국, 호주, 미국에서 온 친구들이었습니다. 즉, 모두 native English speaker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끼리의 장벽은 제가 친구들에게 느끼는 장벽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플랫 어딘가에서 친구들끼리 이야기 하는 소리가 들리면 방에 있다가도 나가보고, 어디 가자고 하면 조금 피곤하더라도 같이 나가는 등 소소한 노력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금방 친해질 수 있었고, 친구들에게까지 소문난 사이좋은 플랫이 되었습니다! 플랫 메이트들과 좋은 친구가 된 것은 그라츠를 정말 집으로 느낄 수 있게 해 주고, 밖으로 굳이 나가지 않고 식탁에 앉아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소확행을 누리게 해 주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 그라츠의 기숙사는 서울대 기숙사처럼 남녀가 분리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혼성 플랫이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습니다. 혼성 플랫을 원치 않으시면 기숙사 지원 할 때 comment 란에 '동성으로만 이루어진 플랫을 원한다'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기숙사 구조는
Neubaugasse 안에서
플랫마다 다 달랐습니다

3. 교환학생 생활

3.1 수업

저는 학기 중에 공대 수업 3개 (Advanced Chemical Engineering, Analytical Chemistry, Introduction to Material Science)와 uni Graz에서 열리는 독일어 수업 (GIC 다음 단계)와 영어 수업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총 5개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두 개의 어학 수업은 매주 출석 체크를 하지만, 학생들끼리 회화 연습 (독일어)이나 토의 (영어) 할 시간이 많아 수업 자체가 흥미롭고, 수업 외에 해야 할 로드는 그렇게 많지 않은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대 수업은 출석도 없고 중간고사도 없고 단 기말 한방으로 평가 받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말 시험도 분석화학과 재료공학개론 수업은 절대 평가 였는데, 시험 난이도는 서울대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편이었습니다. (수업 PPT와 연습 문제들을 보면 무난히 통과 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통과 기준 : 50%) 하지만 Advanced Chemical Engineering 수업이 다른 수업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론 설명을 하시고 관련 연습문제들을 학생들이 조를 짜서 미리 준비해 와 발표하는 형식이었는데, 이론과 연습 문제의 난이도 차가 엄청 나서 시험공부 할 때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필 고사의 하위 15% 학생들은 교수님께서 따로 oral test로 부르셔서 구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교환학생들에 대해서는 시험 일정이나 성적 등에 관해 굉장히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 다닐 때에 비하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거의 없는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어떤 과인지에 따라, 어떤 수업을 신청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3.2 여행

유럽 교환학생하면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여행이죠! 그런 점에서 그라츠는 정말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로 주말여행 할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비엔나는 물론이고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프라하, 부다페스트 모두 버스 타고 금토일 주말여행으로 다녀온 곳이에요! (물론 프라하는 야간 버스로 8시간 정도 가긴 합니다..ㅎㅎ) 1학기가 여행하기 더 좋은 날씨 인 것은 사실이지만 11월까지만 해도 맑은 가을 날씨이고, 추워진 12월에는 온 거리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가득 하기 때문에 2학기에는 또 그 시기만의 유럽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U Graz는 12월 셋째 주부터 1월 첫째 주 까지 3주 동안의 크리스마스 방학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부모님이 오셔서 부모님과 여행을 했는데요, 유럽권 학생들은 거의 다 집에 가고 (유럽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우리나라 명절처럼 가족들과 보내는 연휴예요!) 다른 학생들도 친구들끼리나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이 3주 동안의 방학을 알차게 계획하는 것도 학기 내내 소소한 즐거운 일거리였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방학 덕분에 한 학기 밖에 안 되는 교환학생 기간 동안 유럽에서의 방학도 경험해보고, 방학 끝나고 친구들과 (나름) 오랜만에 만나 각자의 방학 이야기도 나눠 보고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행에 관해서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교환학생을 가기 전엔 '유럽으로 교환학생 간 김에 유럽 여행 왕창 다니고 오자! 이럴 기회가 또 어디 있어~' 라는 생각이 정말 컸습니다. 하지만 교환학생을 하다 보니 이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유럽 교환학생을 갈 때 유럽 여행에 큰 의미를 두고 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학생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특히 유럽 친구들은 교환학생이 주는 유럽 여행에 대한 지리적 이점이 없기도 하고, 본교에서 하는 만큼의 로드를 교환학생 와서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여행을 다닐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자주 다니다 보면 그라츠에서 친구

들과 보낼 시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이런 아쉬움이 든 적이 있는데, (물론 여행 간 것이 후회된 적은 없지만요!) 그 때 든 생각이 '교환학생을 통해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은 유럽 여행이 아니라 이 먼 곳에 내 '집'과 '친구들'을 만들고, '일상'을 누리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교환학생 생활이 저에게 특별한 시간이었던 이유는 내가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고 만족해 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학교생활을 할 때는 내게 주어진 의무가 워낙 많다 보니 '이걸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좀 쉬고 싶다..'와 같이 올바른 답이 뭔지는 알지만 그 답을 선택하기 싫거나 어려워서 하는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의 선택지들로 고민 할 때, 각각의 선택지들이 모두 너무 매력적이고 하고 싶어서 행복한 고민을 하고, 하나를 선택 하면 남은 하나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내가 선택한 것에 만족하고 그것의 장점을 더욱 찾고 누리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그런 고민들이었습니다. 여행에 관한 생각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라츠에 남아 있는 것과 여행을 가는 것, 모두 너무 좋은 선택지였지만 둘 다 동시에 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이렇게 쓰니까 매주 여행 간 것 같지만 그렇진 않고 한 달에 2번 정도 여행을 갔습니다!ㅎㅎ)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도 다른 하나에 대한 아쉬움이 없을 수 없지만, 그라츠에 남아 있을 때는 그라츠에서의 일상을 누리고, 여행 가서는 새로운 여행지가 주는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려고 늘 행복한 노력을 하는 5개월이었습니다! 이 말을 후기에 꼭 쓰고 싶었던 이유는, 교환학생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특권인 새로운 생활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일상의 소중함을 꼭 강조 하고 싶어서입니다. :)

4. 마무리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는 기대 반 두려움 반의 마음이었습니다. 영어가 유창한 것도 아니고, 해외에 오랫동안 나가 본 경험도 없어서 친구를 사귄 수 있을까, 혼자 이런 저런 업무들도 영어로 스스로 할 수 있을까 오만가지 걱정들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환학생을 시작하자마자 느낀 것은 교환학생은 정말 대학생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먼 곳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친구들이지만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곳에 모여 모든 관계와 모든 일상을 0에서부터 만들어나가는 같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서 보다 마음을 쉽게 열고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너무 다르고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솔직해지고, 서로에 대해 관대해 질 수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고, 자존감도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바쁘게 다니면서 할 시간이 없었던 스스로에 대한 여러 고민들을 곱씹어 보기도 했고, 한국에서는 끊임없이 평가 되고 스스로를 남과 비교 하며 자존감을 깎아 내렸다면, 그라츠에서는 오히려 비교 할 수도 없을 만큼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을 만나 관계하면서 내가 그들을 그들 모습 그대로 존중하는 것처럼 내 스스로의 모습도 존중할 수 있는 법을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가기 전에는 내가 동양인이니까, 술을 잘 못하니까, 영어를 잘 못하니까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이 더 어렵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진 않을까? 생각 했는데, 막상 가서 깨달은 것은 나에 대해 나 스스로가 가장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개강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그라츠를 그리워하며 그라츠 생활과 관악 생활을 자꾸 비교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라츠에서의 생활이 단순히 '유럽 교환학생 정말 좋았어' 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의 삶과 사람들, 그리고 저 스스로를 보는 시각을 성숙하게 해서 앞으로 무얼 하든지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더 크게 듭니다!

교환학생을 고민하는 분들께는 교환학생은 정말 대학생의 특권이니 꼭 누리시라고,
어디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그라츠 정말 정말 아기자기하고 좋은 곳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교환학생의 기회를 주신 공대 대회협력실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

활동 평가서)

I never thought I would make one of my best friends in Graz. As well as Yeeun, I come from a completely different continent, culture and upbringing. Going into Graz I didn't expect to have a strong relationship with anyone until I met her. It was like there were no cultural, language or idea barriers. We just became friends and even best friends quickly. Thank you for all the great moments abroad, for always having my back and being there for me. Thank you for all the cafes, the trips, the deep talks and the stories we had and shared. And thank you for all the experiences.

- Sofia, Mexico